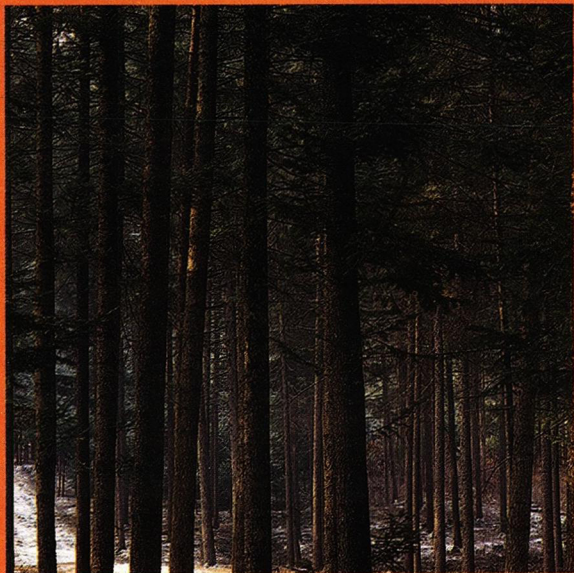


#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What Kind Of Worship Is God Looking for?



한국 오늘의 양식사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What Kind of Worship Is God Looking F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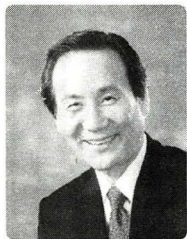
한국 오늘의 양식사



# 차례

발행인의 글 / 김상복 목사.....	4
예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	7
예배란 무엇인가? .....	11
예배의 원리.....	13
1)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 14	
2) 왜 예배합니까? / 22	
3) 어디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 27	
4) 언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 34	
그리스도에게서 배운다.....	41
이사야에게서 배운다.....	45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	49
예배를 돕는 것들.....	51
예배드림으로 얻는 축복 .....	53
당신의 떨기나무는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까? .....	55

##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기독교인들이 제일 자주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한 주에 한 번 정도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영향력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주일 오전 예배를 한번 빠지면 그분은 거의 두 주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혼은 분명히 허약해집니다. 개인적인 QT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한 주만 빠져도 금방 그 영향이 나타납니다.

신앙인이 힘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에 두 번, 주중 수요일에 한 번, 하나님과 충분한 만남을 위해 금요 심야 예배, 날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해 새벽 예배나 개인적인 QT 시간, 일 주일 한 번씩 모이는 다락방(구

역, 속회) 예배 등입니다. 신앙인은 예배를 자주 드릴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예배를 소홀히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초점을 잃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쉼이 없고 평안이 모자라고 힘이 딸립니다.

인간은 예배를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아질수록 믿음, 희망, 사랑, 기쁨, 평화, 감사, 찬양이 넘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대답을 알아야 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정답을 쓰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에도 정답이 있습니다. 자주 드리는 예배가 또한 올바른 예배가 되어야겠지요?

이 소책자를 통해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정돈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 4:23).

2000년 1월 30일

김 상 복 목사



## 예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만일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예배에 관하여 물어 본다면, 아마도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무신론자들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불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아무도 없다면, 있지도 않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둠 속에 촛을 쏘는 것과 같다.** 회의론자들은 누구에게 예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예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개인적 문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에게 예배하든 또는 어떻게 예배하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을 어떤 권능자에게 헌신하는 것이며, 종교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에게 이르는 여러 가지 다른 길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는 내면의 문제이다.** 이러한 견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물 안에 계시며, 또 모든 사물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명상을 통하여 자신의 내적 생각, 그리고 감정이 교통하는 것이 신과 교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골프장에서 드리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만이 아니라 골프장이나 낚시터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예배란 아름답게 반짝이는 물가에서, 웅장하게 드높은 나무 숲에서, 눈부신 하늘의 푸르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생각만큼 특별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대신에 종교적 지도자, 특별한 대상물 또는 이념을 신봉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와 순종을 사교 집단에서는 교주가 받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보다 집이나, 자동차, 일, 친구, 자녀 또는 취미 같은 것에 우선적 관심을 가질 때 일어납니다.

**예배는 예배 의식이 전부다.** 이 견해에 따르면 예배는 일정한 종교적 언어와 행사를 반복하는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일어서고, 앉으며, 절하고, 어떤 다른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통적인 의복과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경우입니다.

---

인간은 예배를 드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배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다만 예배를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게 드려야 하는지를 아는 문제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

**예배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다고 느낍니다. 일요일 아침,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전통적인 찬송, 부드러운 울겐 연주, 그리고 성가대가 필요하고 예배는 오직 성스러운 곳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배에 관해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공부해 나갈 때 우리는 예배에 대한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 2

### 예배란 무엇인가?

대양의 용솨음치는 힘. 그랜드 캐년의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 휘몰아치는 폭풍의 무서움.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무한한 하늘.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경외심과 경탄을 느끼게 하면서 그에 비해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는 무기력하고 힘없는 존재로 느끼게 하곤 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자연도 우리를 이처럼 느끼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창조주의 위대함을 생각할 때 그분을 향한 경배와 탄성이 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말의 어원은 존경과 가치라는 의미를 지닌 고대 영어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분의 형언할 길 없고 묘사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진정한 예배자들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계 4:11)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영어의 “worship”(예배)으로 번역된 단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예배의 의미로 가장 자주 쓰이는 한 단어는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다”(창 18:2)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리스어에서 예배와 가장 가까운 단어는 “존경을 나타냄” 또는 “하나님께 꿇어 엎드림”(요 4:21~24)이라는 뜻이며, 또한 단어를 보면 “경배하다, 섬기다”를 의미합니다(마 4:10).

따라서 예배는 우리의 마음 자세와 행동 모두를 말합니다. 예배는 존경과 경배의 자세뿐만 아니라 홀로 가치있으신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사랑의 행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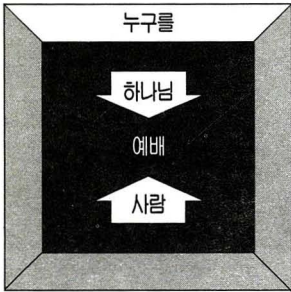
### 3

## 예배의 원리

만일 의사가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하여 모른다면 어떻게 진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정비를 하는 사람이 그 사업의 가장 필수 요소가 되는 정비의 기본을 모르고서 어떻게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

해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1)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경에 기록

된 바로 그 하나님께 드릴 때에만 올바른 것이 됩니다.

거짓 신들이나 하나님께 대한 온당치 못한 생각들은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한 노력을 의미없는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종종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비교할 때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자들은 하늘의 보화를 주시는 하나님 대신 재물을 신으로 모십니다(마 6:24).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 4:10)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만 그와 같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그 가치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표현처럼 비인격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 분은 인격의 모든 구성 요소, 즉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를 최고의 그리고 무한히 아름다운 형태로 지니신 분입니다(사 46:10; 렘 29:11; 요 3:16).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신 6:5).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사실에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시 90:2). 다른 어떤 존재들과 달리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셨고 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예배하는 모든 세대를 위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장소, 형태 또는 건물 안에 한정되거나 가두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형태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떠한 종류의 물질적인 형상으로 격하시켜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 하십니다(시 147:4, 5; 마 10:29, 30; 롬 11:33).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주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문이 잠기거나, 어둡거나, 거리가 멀다고 하여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창 18:14; 시 115:3; 마 19:26). 그분의 능력으로는 어떤 위대한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군대, 정부, 또는 발달된 문명으로도 하나님의 뜻은 꺾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하거나 숨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문을 잠가 버리거나 은밀한 곳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주 그 어느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곳에 계십니다(왕상 8:27; 시 139:7, 8; 렘 23:23, 24; 행 17:27, 28).

---

**하나님의 하나님되심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요, 혼돈,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사 46 : 10, 11; 단 4 : 35; 엡 1 : 11). 하나님은 어제, 오늘도 그리고 어느 때든지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목적, 그리고 능력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약 1 : 17). 하나님은 예전보다 덜 선하시고, 덜 사랑하시며, 덜 진실되거나 또는 능력이 줄어드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찬양하고 의지했던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맞보아 알지어다”(시 34 : 8).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시 145 : 9; 엡 1 : 17).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시 86 : 5; 100 : 5; 135 : 3; 렘 33 : 11).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대하십니다(창 18 : 25; 시 7 : 9~12; 18 : 24~26; 145 : 17). 하나님은 지식, 사랑, 거룩함에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또한 완전히 공의로우십니다.

---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하심과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믿는 자가 자신의 지성, 감정, 의지, 몸과 같은 모든 것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 워렌 위어스비

---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렘 10 : 8,10; 요 17 : 3; 살전 1 : 9; 요일 5 : 20, 21),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민 23 : 19; 시 119 : 160; 요 3 : 33). 우리는 그분의 모든 약속과 원칙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도덕적 결함이나 의혹 또는 흠이 전혀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출 15 : 11; 사 6 : 3). 하나님은 모든 뛰어난 것과 존귀함의 표본이시므로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시 96 : 9; 99 : 9).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인해 그분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인하여 그분을 예배합니다.

## 하나님은 지금까지 무엇을 행하셨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보호자, 구원자, 그리고 심판자로서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경은 경외심으로 압도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우리는 성경의 이 첫 구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이하고도 놀라운 창조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자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지구상의 모든 것들, 즉 공기, 물, 그리고 땅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참나무, 문어, 타조 그리고 오랑우탄 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흙을 취하여 완전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우신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경외심을 안겨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합니다(시 33:6; 사 44:24; 계 4:11).

보호자 하나님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한 순간도 살 수 없

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시 104:27,28; 마 6:25~34).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으로부터 벗어날 때에 모든 것은 파괴되고, 혼란스러워지며, 무질서와 혼돈 속으로 쇠퇴하여 갈 것입니다(히 1:3).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모든 찬양 중에서 가장 큰소리로 오랫동안 찬양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꺼지지 않는 불뭉, 멸망과 불명예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십니다(롬 4:17).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계획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롬 3:19~28). 이와 같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찬양과 존귀와 사랑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심판자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계기가 됩니다. 구약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

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심판자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셨습니다(창 6-9).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창 11). 하나님은 사악한 도시를 파괴하심으로써 인간을 심판하셨습니다(창 19).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대적 원수들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내쫓으심으로써 심판하실 것입니다(계 20:11~15). 어떠한 생각이나 결정, 그리고 행동도 태초부터 항상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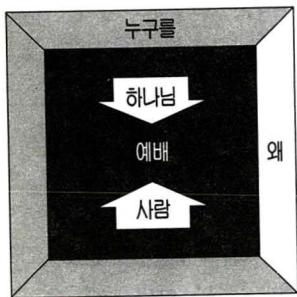
—시편 95:6,7

---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형언할 길 없는 성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한 분이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출애굽기 3:1~4:17, 이사야 6:1~8, 그리고 요한계시록 1:9~20을 읽으십시오.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잠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 2) 왜 예배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라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부분적으로 왜 예배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보다 더 적절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경이로우심에 응답해야 할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 예배는 또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응답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에 감사로 응답함으로써 만족을 느끼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지음받은 대로만 살아왔다면 인간이 겪는 모든 사회적 문제와 질병을 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도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영원히 참여하도록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A.W. 토저**

---

그러나 우리는 본래의 예배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진리에 바르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롬 1:20, 21). 그 결과 인간의 지성과 감성은 왜곡되고 더러워진 세상에 붙들려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행동들은 우리의 보잘 것 없는 우상들이 하



나하나 쓰러질 때마다 번번히 쓰러림과 실망과 후회로 변합니다.

### **우리는 예배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막12:28~30)라고 대답하셨습니다.

---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할 때 그것은 자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

그렇다면 사랑은 곧 예배와 같습니까? 이와 같은 사랑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할 때 그것은 자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선하며 애정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애정과 예배, 그리고 헌신까지도 모두 다 받으시기

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예배를 사 용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지 않 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신뢰 또는 축하를 필 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음식이나 돈, 봉 사 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듯이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 든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 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요구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예배는 그분의 계획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를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선하심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자 리로 옮겨 주십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여! 하나님께 서 달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분에게로 오게 하는 한가 지 수단으로서 예배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진실한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

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비길 데 없는 경이로움에 감사하여 자신을 겸손히 낮추거나 용기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도다”(시 147 : 11)라고 노래했습니다.

---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만 간직하기에 하나님은 너무도 놀라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생기면 뉴스 매체들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히 그 사실을 알립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착륙하였을 때 온 세계에 그 사실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로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뉴스의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놀라운 인격과 역사하심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경배하도록 큰 소리로 그리고 끊임없이 알려져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만 간직하기에 하나님은 너무도 놀라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

는,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시 145 : 4)고 선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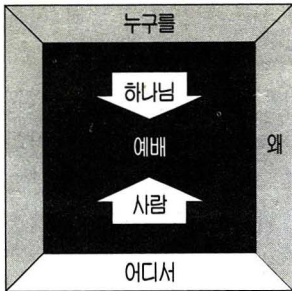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 받으실 분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원리에 관한 우리의 다음 토의 주제입니다.

###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로 인해 어떤 이득을 받으십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당신은 어떤 은총을 받으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인생의 역경들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 **3) 어디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요 4 : 20)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그 때 그녀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대화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은 물에 대하여, 그녀의 결혼 사



연에 관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진실로 어떤 분이신가에 관하여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배와 예배할 장소에 관하여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예배에 관한 대화

중에는 세 가지 종류의 예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예배, 유대인의 예배,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예배가 그것입니다.

### 사마리아인의 예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 뿌리를 둔 혼혈 종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을 미워하며 언제나 피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이 놀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요 4:9). 사마리아인들 역시 예배에 관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유대교의 요소가 남아있었지만 이교도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그리스 산에 자신들의 사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비록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

니다(요 4:22).

### 유대인의 예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인들보다는 좀 낫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예배에 관한 유대인들의 제도(율법, 제사장 제도, 축일, 예배 의식, 희생제물)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셨고 그들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나라에 보이셨고 그 민족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의 탄생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올바른 방식의 예배를 보다 잘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예배드릴 새로운 날과 넓은 의미의 예배드릴 장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

행동이 가장 중요하며 예배는 그 행동을 돕는 것이라고  
들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이  
며 행동은 예배가 진정한 것이었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  
다.  
-윌리엄 템플

---

### 새로운 예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예배의 날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요 4:21, 23). 구약 시대의

예배 형태는 새롭고 살아 있는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히 10:19, 20) 방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의식과 희생 제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만 순전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

혼자서 드리는 예배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요 4:24).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부엌에서 일하는 어머니도 예배

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교실에 있는 학생들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 환자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업가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진리가 우리의 인식을 일깨우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 예배의 중요성을 인정치 않고 예배의 개인적인 측면만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초대 교회의 모습, 성경의 직접적인 명령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마 4:10, 행 2:46, 47).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찬미와 기도, 가르침, 그리고 서로 나누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임의 기회를 통해 모든 부류의 사람들(남자와 여자, 어른과 어린이,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만나서 공통의 목적을 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뜰이나 개인 가정집에서 만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4~47)

---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알리십니다.** -루이스

---

초대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종교적 핍박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흔들렸고 공공 예배를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모임을 계속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구절은 우리가 스스로 신실하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드릴 우리의 책임을 되새기게 해 주는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히 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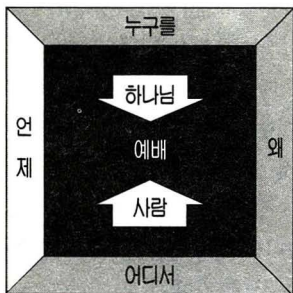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에 잘 나오지 않는 한 교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따뜻한 석탄의 불꽃을 바라보면서 난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지만 석탄들이 빨갱게 타고 있는 난로 덕분에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성도들과의 모임에 좀 더 잘 참석할 것을 간청했지만 그 사람은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혼자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신 후 난로 옆에 놓여 있는 석탄 집게를 집어 들고 난로에서 활활 타고 있는 석탄 하나를 집어올려 석쇠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붉게 타던 석탄은 색깔이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뜨거운 열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 성도는 그것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주일 예배에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하나님을 찬미하기가 어려운 장소는 어디입니까? 당신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즐거운 예배를 드립니까? 당신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 하루 중 잠깐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모임에 얼마나

착실하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 4) 언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드릴 수 있는 곳뿐만 아니라, 예배드릴 수 있는 ‘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와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성

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마음 속으로부터, 진리를 따라서,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방식들을 피하여 드러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드러질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많이 있다고 믿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해주실 분을 필요로 하는 죄

인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롬 3:23).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요일4:14).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우리를 '돕는 자' 라고 말씀합니다(요 14:16).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도우십니다(벨 3:3).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받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는 존귀한 예배로 화답할 때 이것이 바로 삶을 함께 나누는 관계인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의 표현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 설명하실 때 예배는 ‘영’으로 드러

---

**예배는 단지 예배에 알맞은 언어나 형식을 사용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하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진실한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

야 한다고 하셨습니다(요 4:23). 예배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는 성령에 의하여 생명을 갖게 된 마음으로 드러야 합니다. 예배는 단지 예배에 알맞은 언어나 형식을 사용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여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의 진실한 표현이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와야만 합니다.

**진리에 따라 드러질 때** 최선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함에서 오는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열정이 있습니다. 예배의 감성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감정이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가 감정 또는 진리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

나 예수님께서서는 감정과 진리 둘 중의 하나가 아닌 둘 다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으로 훈련, 연결, 고취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성적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올바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배워 그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

**예배는 신령 또는 진정한 하나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 모두를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

**과거의 잘못을 피할 때** 우리의 예배가 잘못 드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많은 예를 통해서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두 형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오직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창 4:3~5). 분명한 것은 아벨은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히 11:4).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모세

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였습니다(출 32:4).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음으로 벌하셨습니다.

한참 뒤에 선지자 말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남용을 지적하고, 사람들을 불러 그 잘못된 예배를 멈추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쾌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말 1:10~13)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때에 예배를 받지 않

으신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배웁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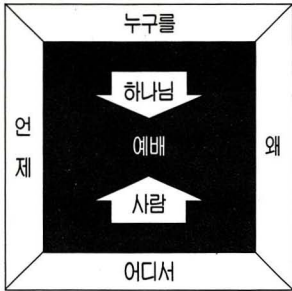
- 올바른 태도로 예배하지 않을 때(창 4 : 1~7)
- 우상이나 또는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출 20 : 3~5)
-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무시할 때(레 10 : 1, 2)
-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관습으로 폐할 때(마 15 : 3~6)
- 진실함 없이 허튼 말로 예배할 때(마 15 : 7~9)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단지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 예배는 올바른 방법으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오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중요한 첫 단계를 밟으셨습니까?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며 우리의 예배를 휘방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엡 4 : 29~32; 살전 5 : 16~22) 어떻게 하면 훌륭한 종교적인 전통들이 생명 없는 의식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찬송은 당신의 예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5)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만을 진정한 예배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

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과거의 잘못된 관습을 피하여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편 기자처럼 노래합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여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시 95 : 6,7)

## 4

### 그리스도에게서 배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다(갈 4:4). 그러나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케 하셨습니다(마 3:17; 요 8:29). 예수님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예배의 완전한 표현이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습니다(요 8:29).

-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요 11 : 41).
-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했습니다(요 8 : 49).
-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다(마 14 : 23; 벰전 2 : 23).
- 그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요 5 : 30).
- 그는 진실로 겸손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벰 2 : 8).
-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다(요 17 : 4).

그렇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예배에 마땅히 들어 있어야 할 것을 그분의 예배로부터 배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참 예배자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로 몸소 예배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예배는 단지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분에 대한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것이 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대상 28:9). 다윗의 이 말은 진정하다는 것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찬미**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여야 하며 그를 찬미함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시 34:1).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시 48:1).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할 것입니다(시 118:1).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존경심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마 22:37; 시 34:9).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어떤 종교적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외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기도와 믿음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이는 진정한 예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엡 6:18; 살전 5:17).

**믿음의 삶**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히 11:6). 따라서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진정한 자세가 예배에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스스로 주님께 내려놓는 모습으로 나타냅니다(고전 10:31). 우리가 오만하고, 반항적이며, 불순종할 때, 우리의 예배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입니다.

## 5

### 이사야에게서 배운다

선지자 이사야의 삶에는 그의 예배에 깊은 영향을 준 어느 하루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것을 꼼꼼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배에 관해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이 구절은 예배가 갖추어야 할 것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만남** 이사야의 예배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는 “웃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주를 보았다”(사 6:1)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에게 그

의 예배는 물론, 우리의 예배의 핵심적 요소인 한 가지 깨달음을 준 바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권세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확고한 주권자로 살아계신다. 세상의 왕들은 죽어 사라지지만, 주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심과 권세와 영광 중에 홀로 변함없으시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언제나 진정한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뉘우침** 이사야의 예배는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에 의하여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사 6:5)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뉘우치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마찬가지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욥 42:5, 6)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씻음** 이사야의 예배에는 또한 그의 죄를 씻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부정함은 천사가 제단 숯불을 취하여 그의 입술에 갖다 대었을 때 제거되었습니다(사 6:6, 7). 우리도 이사야처럼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요일 1:9).

**부르심** 이사야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죄 씻음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사 6:8)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 이와 똑같은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며(행 1:8) 그분의 영광들을 사람들에게 앞서 증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벧전 2:9).

**헌신** 이사야의 예배에는 개인의 헌신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후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 6:8)라고 답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모든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자신의 뜻을 접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놓은 것은 예배하는 자세로 보여 준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에도 같은 것이 요구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선택을 우리도 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롬 6:13).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단번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롬 12:1, 2). 이것은 산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원하여 섬기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깊은 사랑이며 감사입니다.

이사야의 경험은 참으로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그의 응답은 참된 예배의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 즉,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응답에도 만남, 뉘우침, 씻음, 부르심, 그리고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 6

###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방해 요소들을 알아내어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지**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숭배합니다(행 17:23). 그들은 종교적 행위는 하면서도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생명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들은 매우 진지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요 4:22). 그들에게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불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상급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히 11:4~6).

**숨겨둔 죄**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자백해야 합니다(요일 1:9).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차가워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릇된 자세**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과 화해를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실 것입니다(마 5:23, 24; 6:14; 엡 4:31, 32).

**잘못된 우선 순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마 6:33). 참 예배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최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의 방해** 사악한 세상적 제도, 우리 속에 내재하는 죄성,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롬 7:23; 벧전 5:8; 요일 2:15). 그러나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의지하여 산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적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갈 5:16; 약 4:7; 요일 5:4).

## 6

### 예배를 돕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때 이러한 노력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의 방법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묵상** 시간을 정해서 묵상을 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예배드릴 준비가 될 것입니다(시 63:3, 4; 89:1~11; 119:

15; 빌 4:8).

**고백**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진실로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고백과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사 6:6, 7). 하나님은 정결해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요일 1:7~10).

**음악** 찬송과 악기를 사용할 때 우리 예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시 150; 엡 5:19; 골 3:16).

**질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무질서하거나 혼란스러워서는 안됩니다. 예배는 질서정연하게 행해져야 합니다(고전 14:40).

**기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딤후 2:1~8; 히 4:16).

**드림** 우리가 받은 재능과 물질을 드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 드리게 됩니다(고후 9:6~15).

**성경 공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나, 주일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딤후 3:16, 17; 4:1, 2).

## 7

### 예배드림으로 얻는 축복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집에 “인간의 첫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 분으로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은총들을 모두 합쳐서 받게 되는 상급입니다.

**용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입니다(롬 5:1; 요일 1:9). 그들은 예배를 통하여 정결케 됩니다.

**인도**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고 매일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시 25:4~12; 잠 1:7; 3:5, 6).

**물질** 우리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6:33; 시 23; 37:3~6).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시 63:3; 요 14:21, 23; 롬 5:5).

**능력**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고후 12:7~10; 엡 1:15~19; 3:14~16; 빌 4:13).

**보호하심** 하나님은 그를 시인하는 모든 자들을 신실하게 돌보시며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지키십니다(시 5:11, 12; 뵤전 1:5).

**영광**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광의 그 날에 모두 영화로움을 입을 것입니다.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 신앙의 선진들과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완전하고 방해받을 것이 없는 예배에 참여할 것입니다(뵤후 3:13; 요일 3:2; 계 19:1~10).

## 8

### 당신의 떨기나무는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까?

당신은 떨기나무, 특히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가 예배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고 의아해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나 계시기 때문에 예배는 어느 곳에서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가 예배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여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모세와 떨기나무 불꽃** 광야와 같은 곳에서 양을 돌보던 모세는 꺼지지 않고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가 떨기나무로 가까이 오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건이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한 예배의 사건이 되었습니다(출 3:1~4:17).

오늘날의 사람들은 떨기나무 불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모세처럼 자신의 인격으로 대답해야 하는 순간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영적인 순간을 만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경험은 바로 ‘떨기나무 불꽃’과 같은 것입니다. 잠깐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이 경험이 바로 평생에 걸친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떨기나무 불꽃** 그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신 분은 바로 주님의 천사였습니다. 또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즉 대화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16)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 ■ 구독 신청과 독자 주소·전화 변경 받는 곳

전 화 : (0342) 780-9565~7

F A X : (0342) 780-9569

E-mail : odbkor@hitel.net

인터넷 : <http://www.hallelujah.or.kr>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우편번호 : 463-070

## ■ 선교헌금 안내

오늘의 양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권당 450원의 제작비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 주심으로써 문서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번호·예금주 : 「할렐루야 선교원」

한빛 : 132-05-108980

국민 : 097-01-0199-703

서울 : 16301-1886909

의환 : 026-13-33750-7

제일 : 107-10-109840

농협 : 001-01-214911

조흥 : 308-01-137748

우체국 : 012773-0026681

## ■ 섬기는 분들

발행인 / 김상복 편집장 / 김승호 고문 / 최태의 위원장 / 김경현

봉사위원대표 : 총무 / 차일환 기획 / 정호균 회계 / 최석주 관리 / 이종규

출판 / 이덕진 발송 / 임길택 홍보 / 김대환 상담 / 김영자

제작 / 소망사 : 733-4242 · 팩스 : 733-4243

신앙 성장 시리즈 14

**하나님을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인 쇄 / 2000. 3. 20

발 행 / 2000. 3. 26

발행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전 화 : (0342)780-9565~7

**1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감, 고통, 슬픔에 잠길 때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2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즐거운 신앙생활 안내

**3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

**4 복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참 행복의 설계

**5 균형있는 가정생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가정생활

**6 왜 살아야하나?**

삶의 의미와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하루하루를 뜻있게 사는 길

**7 행복한 결혼생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공적 결혼의 10가지 요소

**8 남자다운 남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남자! 그 모습대로 완성되어 가는 길

**9 여자다운 여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자의 모습!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인의 삶

**10 걱정없이 살고 싶다**

왜 걱정합니까? 걱정없는 삶의 성경적 해답

**11 다시찾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첫사랑의 감격과 활력을 회복하는 길

**12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섯 가지 기본원리

**13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 하루하루 성장하는 삶의 지침서

# 「신앙성장 시리즈」 구독신청 및 선교헌금 안내

청원및 헌금자	성명											전화			
	주소											(우편번호 : )			
받는 사람	성명											전화			
	주소											(우편번호 : )			
	출석교회											지분			
	시리즈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신청부수														
		헌금입금은행 : ( )은행													

## ■ 선교헌금 안내

『한국 오늘의 양식사』는 『신앙성장 시리즈』를 통하여 성도들의 영적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제작비(권당 600원, 운송료 포함)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주시므로써 문서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구좌번호 <예금주 : 할렐루야선교원>

외환 : 026-13-33750-7

한빛 : 132-05-108980

국민 : 097-01-0199-703

서울 : 16301-1886909

우체국 : 012773-0026681

제일 : 107-10-109840

농협 : 001-01-214911

조흥 : 308-01-137748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한국 오늘의 양식사』 우편번호 : 463-070

전화(0342)780-9565 ~7 FAX (0342)780-9569

## 신앙 성장 시리즈 [14]

###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배의 원리들을 알아봄으로써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책자를 통해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로 정돈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 예배란 무엇인가?
- 예배의 원리
- 그리스도에게서 배운다
- 이사야에게서 배운다
-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 예배를 돕는 것들
- 예배드림으로 얻는 축복
- 당신의 떨기나무는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까?



**Radio Bible Class**

이 책자는 미국의 R.B.C(Radio Bible Class)에서 발행한 'What Kind Of Worship Is God Looking For?'을 『한국 오늘의 양식사』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번역 출판한 것입니다.